

○ 외환리포트

<b>전일동향</b>	전일대비 6.70원 상승한 1,489.30원에 마감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3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 대비 6.70원 상승한 1,489.30원에 마감했다.

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2.90원 상승한 1,495.40원에 개장했다. 미국과 이란이 장시간의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위험회피 분위기가 확산되며, 1,489.30원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

주간장중 변동 폭은 12.90원이었다.
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33.86원이다.

전일 달러 변동	시가	고가	저가	종가 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1495.40	1499.70	1486.80	1489.30	1489.80

전일 엔화 변동	시가	고가	저가	종가
	930.70	938.78	927.31	933.86

전일 유로화 변동	시가	고가	저가	종가
	1738.08	1752.16	1729.04	1750.91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1M	3M	6M	12M	
	보장환율(수출)	-0.78	-4.02	-9.04	-17.39
	결제환율(수입)	-0.45	-2.64	-6.78	-13.8

\*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
\* 해당월 말일(영업일)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
\*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에서 확인가능

<b>금일 전망</b>	미-이란 협상 낙관론에...1,480원대 중심 등락 전망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1.3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489.30) 대비 9.40원 하락한 1,478.60원에서 최종호가됐다.

금일 환율은 미-이란 협상 낙관론 속 위험선호 심리 확산과 약달러 분위기에 하락 전망한다. 미국과 이란이 주말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으나,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인식 속에 시장의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었다. 특히 2주간의 휴전 시한 내 2차 대면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시장에서 낙관적 기대감이 확산되면서,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달러 약세가 나타났다. 더불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맞봉쇄를 개시한 가운데 100달러를 재차 돌파했던 국제유가는 이란이 협상을 위해 접촉해왔다는 트럼

프 대통령의 발언에 상승폭을 축소하기도 했다. 이와 같은 환율 하락 재료가 갖춰지면서 수출업체 추격매도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이 원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, 금일 환율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.  
 다만,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저가 매수세는 추가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.

<b>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</b>	<b>1473.50 ~ 1483.25 원</b>
<b>체크포인트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4578.99 억원</li> <li>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9.40원 ↓</li> <li>■ 美 다우지수 : 48218.25, +301.68p(+0.63%)</li> <li>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45.44 억달러</li> <li>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344 억원</li> </ul>

**주의사항**

※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.  
 ※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